

# 포문화도시 사업비 집행률 15년간 27% 그쳐

### 민간공원 특례사업 송정공원 재정 투입 뎀 483억 추정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송암공원내 학교 부지 사업대상 제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송정공원에 광주시의 재정이 투입되면 483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됐으며, 1단계 특례사업 대상인 송암공원 내 학교(광주대) 부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15년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비 집행률은 27%에 그쳤고,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광주시의 도시경쟁력과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13일 시의회 조석호(민주·북구 4)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2차례 공모에도 송정공원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도시공원 유지 및 확보라는 원칙하에 재정사업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

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재정사업 추진 시 매입비용은 약 483억원이고, 이 가운데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우선 매입비용은 약 270억원으로 추정했다.

1단계 특례사업 대상인 송암공원 내 학교(광주대) 부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송암공원 내 3만5000㎡는 광주대 소유 부지로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제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사람학교법에 따라 학교는 교지 의무 확보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광주대 소유 부지가 공원으로 개발되면 교지

의무 확보 면적 축소로 학생 정원 감축 등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학교라는 공공성을 감안해 제척은 하고 특혜 의혹 해소 및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하고 학교 용지 외에는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행 공중 각서를 받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송형일(민주·서구 3) 의원은 13일 시정 질문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총사업비 5조2912억원이 투입되는데, 2018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1조4528억원으로 27.5%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2018년 집행액은 국비 1조2703억원, 지방비 1102억원, 민자 723억원이다. 송 의원은 "애초 계획에 의하면 현재는

조성 사업 단계별 추진전략 과정보다 성과에서 정착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로 최소한 70~80%의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민주·광산4)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공기관장인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단행한 인사로 공공기관의 대표와 임직원들이 행정의 공적자들보다 더 강력하게 내부의 혁신 엔진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앞으로의 인사에서 시장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시민의 자치력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안정망을 확대하며, 골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영화 '택시운전사' 김사복·힌츠페터 5·18 구묘역 나란히 안장 어려워

### TF팀, 힌츠페터 유품 안장 불가

영화 '택시운전사' 실존 인물인 고(故) 김사복 씨와 그의 도움으로 5·18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가 5·18 구묘역에 나란히 안장되는 것은 어려워졌다.

광주시와 5월 단체 등으로 구성된 5·18 구묘역 안장심의TF팀은 13일 힌츠페터가 남긴 유품을 5·18 구묘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장 불가' 권고를 냈다. 봉분을 세우지 않는 독일의 관습에 따라 유품을 구묘역으로 이전하더라도 다른 400여 묘지와 달리 봉분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힌츠페터의 묘역에만 봉분 대신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유족과 참배객 정서상 맞지 않다고 심의위원들은 판

단했다.

다만 김 씨의 아들 승필씨가 아버지의 유해를 힌츠페터의 유품과 나란히 안장하길 원한다면, 현재 힌츠페터 유품이 묻혀있는 5·18기념정원에 안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5·18기념사업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앞서 힌츠페터는 생전에 가족들에게 '죽으면 광주에 묻어달라'는 뜻을 수차례 밝혔고, 그의 유지에 따라 머리카락과 이전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장 불가' 권고를 냈다. 봉분을 세우지 않는 독일의 관습에 따라 유품을 구묘역으로 이전하더라도 다른 400여 묘지와 달리 봉분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힌츠페터의 묘역에만 봉분 대신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유족과 참배객 정서상 맞지 않다고 심의위원들은 판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여수서 오픈워터수영 시설 점검

###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3일 여수시 엑스포해양공원 일원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주재로 오픈워터수영 종목의 대회시설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본 대회를 60일 앞두고 열린 이날 현장 점검은 광주수영대회 종목 중 유일하게 전남에서 개최되는 오픈워터수영 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여수해양엑스포공원 주변 바닷가에서 진행됐다.

'물 속의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수영은 수영장이 아닌 바닷가에서 진행되며, 남·여·팀 경기로 치러진다. 5km, 10km, 25km 등 총 7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특히 오픈워터수영 선수들은 비나 파도와 같은 날씨, 해파리 등 해양 생물을 비롯해 다양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직위는 안전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경기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조직위는 또 여수세계박람회 열렸던 엑스포해양공원 내에 방송시설, 선수시설, 관람석 2095석, 기능실 78개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경기장 바다에는 해상 푼톤(물에 뜨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6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는 오픈워터수영 경기를 위해 조직위와 협력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참가자들 시내버스 무료이용, 각종 문화행사 등 행·재정적인 지원과 적조 방제, 해파리 모니터링과 퇴치 등 해상안전대책 등을 지원한다.

조영택 사무총장은 "경기장이 광주에서 멀리 떨어진 만큼 대회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여름철 바다에서 치러지는 장거리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안전사고와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화전당 하늘마당에 펼쳐진 오색 우산 13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하늘마당에 오색의 우산들이 하늘을 물들이며 지나는 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39주년 5·18기념식 수송버스 운행

광주시는 광주지방보훈청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자 편의를 위해 수송버스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수송버스는 기념식 당일인 18일 14개 지역에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까지 18대가 운영된다. 출발장소와 시간은 ▲광주시청(8:00) ▲동구청(8:00) ▲서구청(8:00) ▲남구청(8:00) ▲북구청(8:00) ▲광산구청(8:00)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8:00) ▲광주YMCA(8:00, 8:30) ▲5·18기념문화센터 앞(8:00, 8:30) ▲5·18기념문화센터(8:00) ▲광주보훈병원 건너편(8:30)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앞(8:00, 8:30) ▲광주송정역 시외버스

정류장(8:00, 8:30) ▲각화동 농수산물 시장 앞(7:30, 8:30) 등이다.

이들 버스는 기념식이 끝난 후 오전 11시30분 국립5·18민주묘지 주차장에서 당초 출발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셔틀버스는 기념식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광주동초등학교-국립5·18민주묘지 ▲수곡3거리-국립5·18민주묘지 등 2개 노선을 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수송버스와 셔틀버스 탑승요금은 무료다. 운행시간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광주민주인권포털(www.gjh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 광주시감사위, 15일부터 시행

광주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하고 15일부터 시행(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는 시민 누구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때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 불충분 보조금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미반환 등이 해당된다.

신고포상금은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회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게 되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됐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최권일 기자 cki@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전라도말 자랑대회' 참가자 모집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오는 26일까지 '제9회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라도말 자랑대회는 남도의 멋과 흥을 오롯이 담고 있는 전라도말의 가치를 일깨우고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함양을 위해 2011년부터 열고 있다.

전라도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란 단체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서류심사인 예선 결과는 27일 발표한다.

본선은 6월 1일 오후 2시 북구 비엔날레 전시관 거시기홀에서 열린다.

본선 행사에서는 전라도말 알아맞히기와 마당극 공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함께 열린다. 운송중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진짜 전라도 사람들이 쏟아내는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가 기대된다"며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660㎡, 건평: 83㎡, 매매가: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

##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